

1만800원 VS 용납 안 돼... 내년 최저임금 대란

근로자위원, 올해보다 23.9% 오른 최초 요구안 제시
사용자위원 “용납 안 돼” 동결보다 강수 돌 가능성
업종별 차등적용도 논의... 4시간 넘게 견해차만 확인
제6차 회의서 표결 부치기로... 관례대로 동일적용 예상
경영계 요구안도 29일 제출... 올해도 법정기한 넘길듯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2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으로는 225만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지난해 요구했던 금액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고 선수를 쳤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내년도(올해)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2021년도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으로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이 지급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내놔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언급한 ‘지난해 요구금액’이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1만770원인지, 한국노총과 협의의 거쳐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날 노동계가 발표한 최초 요구안을 참작하면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1만77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을 놓고 긴급회의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대해 “(1만800원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잘라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요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꾸하거나 논의할 가치가 없다”면서 “방법부터가 잘못됐다.”

장내에서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최초 요구안을 장외에서 언론플레이(여론몰이)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언론에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날 오전까지도 최초 요구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면서 “마이너스(인하)안 의견도 있고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영계는 -4%대 인하안과 -2%대 인하안을 놓고 고민하다 180원 내린 8410원(-2.1%)을 최초 요구안으로



2021 칸 라이언즈 라이브 성료... 세계에 DEI(Diversity 다양성, Equality 평등, Inclusion 포용) 화두 던져 세계 최대의 크리에이티비티 축제인 칸 라이언즈(The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의 디지털 축제 '칸 라이언즈 라이브(Cannes Lions Live)'가 28일 폐막했다.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 프랑스 칸에 직접 모이지는 못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었다. 칸은 올해 D.E.I.(Diversity 다양성, Equality 평등, Inclusion 포용)의 화두를 세계에 던졌다. 사진=칸 라이언즈 한국사무국

로 냈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보면 동결(46.3%)과 인하(45.7%)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지나해처럼) 인하안을 내놓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견도 없잖다”고 전했다.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과정이 지루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를지 여부는 노동계가 내놓을 최초 요구안의 진정성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날 노동계가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금액(1만770원)보다 30원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경영계도 강수로 맞설 대응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지나해처럼 인하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

게 나온다. 경영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간 견해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최초 요구안 제시 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

새 거리 두기 5→4단계로
수도권, 7월1일부터 2주간 이행 기간
비수도권은 1일부터 8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정부가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4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일부터 6일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 서 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그

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기준을 현실화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22시 이후 제한이 확대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김 총리는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이고 사회적 경각심이 있어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 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Inside	
주 52시간 강행	▶2면
7월 초강력 대출 규제	▶6면
칸 라이언즈 특집	▶10, 11면
칸 라이언즈 수상작	▶12, 13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소진공, '특성교육 대학' 모집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대학 전문교육과정의 신설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교육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성화대학은 소상공인 온라인진출을 위한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유통·물류, 수출입, 마케팅 등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 수강과 실습기회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시장 진출관련 전문교육이 가능한 2~4년제 대학 6곳 내외가 신청 대상이며 선정대학은 공단과 협약 체결후 올 12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교육사업을 수행하게 된다.(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제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소진공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와 발표평가, 대학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조보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대학사업은 비대면·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2021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

라이언즈 멤버십으로 경험하세요!

- 방법 : 칸 라이언즈 라이브 홈페이지(www.lionscreativity.com)에서 멤버십 등록.
- 요금 : 개인(249 유료), 20인 이상은 단체 등록 할인
- 혜택 : 글로벌 커뮤니티 멤버 교류,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분기별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정기 뉴스레터, 템플릿·마케팅 토크 등 크리에이티브 리소스를 포함한 칸 라이언즈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1년동안 이용가능
- 문의 : 칸 라이언즈 코리아 webmaster@canneslions.co.kr